

사순절 세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3RD SUNDAY IN LENT

주후 2023년 3월 1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58 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통일 19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1 번 시편 17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Exodus) 20:1-17	한경준 집사
찬 양 Anthem	“주 의지하세”	찬양대
설 교 Sermon	“간음하지 말라”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420 장 “너 성결키 위해” (통일 21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 무관심했고,

우리 자신의 유익과 안락함을 좇아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죄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기적이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12:1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간음하지 말라.” (개역개정, **출 20:14**)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NIV, **Exodus 20:14**)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3/12 (주일)	3/13 (월)	3/14 (화)	3/15 (수)	3/16 (목)	3/17 (금)	3/18 (토)
	출23	출24	출25	출26	출27	출28	출29
본문	요2	요3	요4	요5	요6	요7	요8
	오후11	오후12	오후13	갈1	갈2	갈3	갈4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3/15오후7:30)	“축복의 소중함” (창25:29-34) – 윤영록 장로
토요 새벽기도회 (3/18오전6:30)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시115:1-11)

지난 주일(2/26)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28)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1-17)

십계명의 여섯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출20:13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 중에 이것을 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계명 만큼은 “떳떳하고 자신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단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마5:21-22) 때문입니다. 즉, 실제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일3:15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마음의 숨겨진 동기 즉, 1)“마음의 살인”과 더불어, 말로써 표현되는 2)“언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미움과 분노를 항상 경계하며, 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즉, 마음의 살인을 경고(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5:22)고 말씀하셨는지? 를 곰곰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인”처럼 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여섯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누군가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국한되지 않기에, 우리는 (더욱) 덕을 세우는 선한 말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구별된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설/교/ 메/모